

탈식민지 인도 정치인의 한국인식

Sanjay Kumar* · Santosh Kumar Ranjan**

Sanjay Kumar and Santosh Kumar Ranjan. A study on Indian leaders' Perceptions of Post-Colonial Korea. This paper proposes to trace the perception of Indian leaders about Korea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Since India and Korea experienced colonial hardship and had common trajectories after independence, we need to scrutinize the viewpoint of leaders in order to establish the Indian position on Korean peninsula.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after independence the world view of Indian leade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Indian masses. The pre perceptions of Post-Colonial Korea among Indian leaders portray a single thread that is diplomatic viewpoints. Due to paucity of historical evidences, it is understood that there was no deeper contact and masses of the two nations were less concerned towards each other. Nevertheless, it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recent sources that the perception about Korea among Indian leaders was not negative and it has revived with greater strength in modern times. The Indian leaders' view on colonial Korea was based on the anti-colonial linkages and the notion of pan Asianism. The recent findings offer multi-dimensional approach where Indian leaders appear to be underlining Korea as a potential partner in East Asia. Hence, this paper attempts to scrutinize the perception of Indian leaders about Korea and explains the projected elements of Korea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Keywords: India, Leaders, Perception, Post-Colonial Korea

1. 문제제기¹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가진 타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국가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타자에 대한 인식연구를 통하여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가 가진 인식을 연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연구의 경우는 주로 미국,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쉬와 스리랑카 등의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한국에 대하여 미흡한 수

* Sanjay Kumar: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 Santosh Kumar Ranjan: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¹ 본 논문은 인도 지도자들의 한국인식을 주제로 韓印 관계의 진전과 외교용 자료를 통해 인도 지도자들의 한국인식을 고찰한 논문이다.

준의 인식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韓)·인(印) 교류사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정치지도자인 Jawaharlal Nehru(넬루)와 Abdul Kalam(압둘칼람)과 Manmohan Singh(만모한 싱)의 견해를 중심으로 탈식민지 인도 정치 지도자들의 한국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탈식민지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식민주의 전통의 파괴와 인식, 권력과 탄압의 자세 등을 고려한 개념이다. 인도의 상황에서는 탈식민지는 1947년 영국제국에서의 독립 후를 말한다. 하지만 반식민지의 시각은 인도인들에게 더 일찍 형성되었음을 말한다.²

한국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완(2005)가 연구한 칼 리터의 한국인식과 강인구(2001)가 연구한 러시아인의 한국인식(19세기말~20세기초)과 김영(2009)이 연구한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및 이규소(2003)가 연구한 후세 다츠지의 한국인식과 함동주(2001)가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 등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³

이와 같이 인도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식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인도인이 가진 한국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한(韓)·인(印) 관계를 강조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로써 한국과 인도의 외교적 교류와 경제적 현

² Chandra, Bipan, 『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857-1947』, 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857-1947, Penguin press 2000, 178 쪽.

³ 김재완, 「칼 리터의 한국인식」,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 권, 제 1 호, 2005; 강인구, 「러시아인의 한국인식-19세기말~20세기초」, 『서울학연구』 제 16 호, 2001, 83-107 쪽; 김영,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제 21 집, 2009; 이규소, 「후세 다츠지의 한국인식」,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 25 집, 2003; 함동주,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 『Bulletin of the Ewha institute of history』 28 권, 2001.

황 등을 알 수 있는데, Research and Research(2005)는 중국, 인도와 러시아에서 반영되어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조사한 경우가 있다. 정재호(2013)는 일반적 경험상으로 한국과 인도, 양국 간의 상호 국가적 이미지를 비교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편자는 인도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인도인을 대상으로 2013 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험이었다. 그 외에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탈 식민지 시대를 중심으로 인도지도자들이 가진 한국인식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양국의 인식 구조와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식민지 시대에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은 세 정치가의 한국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세 정치가는 자와할랄 네루, 압둘 칼람과 만모한 싱이며, 이들 인도 정치지도자들의 타국에 대한 인식은 인도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도의 정치지도자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양국의 학문과 사회문화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탈식민지 인도와 한국의 상호교류

20 세기 중반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아공의 많은 국가들의 독립을 얻었다. 이로 인해서 제 3 세계와 각 국가들은 문화 교류 및 외교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진전 속에 학계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탈식민지의 논의으로써 구체적으로는 탈식민지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분야로는 문학, 사회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의 측면에서

담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⁴ 당시의 인도 정치지도자들은 사회, 문화, 정치에서의 불평등함을 인도의 정체성과 연결을 한 것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탈식민지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후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며, 필자는 본고에서 그 기간으로 한정하고 중요한 탈식민지 인도 정치지도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인도가 서구와 영국의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였다면,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해방 이후 각국은 새로 독립된 국가를 건립하였지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러므로 양국이 외교수립을 할 정도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두 국가는 일제강점기와 영국제국주의라는 강제적 억압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신 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상황에 있었다.

분열로 본다면 한국과 인도의 사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국과 일본이 행했던 식민지 정책의 시행 과정과 내용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영국은 인도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인도인들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는 미약했다. 반면 일본은 한일합방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을 제국주의의 완전한 통치하에 두려고 계획하였다.

1947년 국제사회는 UN에서 논의한 이후에 한국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인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찍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1942년 국회에서 한국의 해방을 염원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⁵. 한국

⁴ Baylis, John et. al.,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876쪽.

⁵ 김찬원(2009) 『The role of India on the prisoners of the Korean War』 다카: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30-31 July, 2009, 1쪽; The Committee for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30 Years of Korea-India Relations』 (Seoul: Shingu Publishing Co., 2003), 338쪽

문제가 UN 에 제기되었을 때 인도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해결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⁶

그런데 인도의 인식은 한국의 분란문제에 대하여 당시 열강들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문제를 다루면서 인도는 주도적으로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돕는데 기여하였다. UN 총회에서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채택된 최초의 결의안은 미국의 초안이었으나 대부분 인도의 제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⁷ 1947 년 11 월 14 일, 유엔은 인도의 제안 일부, 미국의 제안 일부를 토대로 한 이진의 해결안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회(UNTCOK)를 구성하였고 인도대표인 K. P. S. 메논은 만장일치로 UNTCOK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UN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에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선거 및 군대 철수를 중립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UN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⁸ 인도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받은 비 일부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1950 년 11 월 20 일에는 A.G.링가라지 중령의 지휘하에 17 명의 교관, 9 명의 JCO 및 기타 300 명의 지위 고관들로 구성된 제 60 인도 의료 지원 부대가 한국에 상륙했다. 이 파견 부대가 상륙한 그날부터 바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그 때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영국 27 여단에 합류하고, 나머지 그룹은 남쪽에 위치한 대구에 주둔했다. 처음부터 의료 지원 부대는 명성에 전맞은 업적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⁹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인도는 소강상태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62 년에 이르러 영사관계를 수립하였다. 1973 년에는 대사관 급으로 외교관계가 격상되었으며, 이로부터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⁶ 김정수, 『인도와 한국 전쟁-인도 비동맹외교의 기원』,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131 쪽.

⁷ GAOR, Sess 2, Committee I, 1947, Meeting 94, 307쪽; 김찬환, 『The role of India on the prisoners of the Korean War』 다카: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30-31 July, 2009, 1쪽.

⁸ 김정수, 『인도와 한국 전쟁-인도 비동맹외교의 기원』,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131쪽.

⁹ 위의 책 같은 편, 339쪽.

1993년에는 인도의 라오 총리가 방한하였고, 그 20년 동안 한국은 고위인사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인도가 표면적으로 비동맹 중립 정책을 펴며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실질협력을 보다 중시하였다. 1990년 이후 한(韓)-인(印) 관계는 남북한의 대결로 인한 기존의 정치외교 중심의 관계에서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21세기에 이르면 인도와 한국 간에는 대규모의 산업분야에서의 교류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인도인들이 가진 한국인식이 개선되었다.

그것은 인도의 프런트 미디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도 증가하였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의 바탕에는 인도 정치지도자들의 가진 한국인식이 바탕에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네루의 한국인식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인도의 초기 수상이다. 『세계사 편력』에 실린 네루의 편지 내용에서 그는 일본의 눈에 가장 적당한 상대로 비친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조선에 침입하고,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무역을 위해 항구를 개방시켰다고 하였다.¹⁰ 네루는 역사 학도이며 자유 독립 운동 연구자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3.1운동(1919년 3월 1일)에 대해 평가하였다.

¹⁰ “조선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을 중주국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은 중국에 원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 너무나 큰 세력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 정부는 조선에게 일시적 양보를 권했다. 또 일본의 진주를 막기 위해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도록 권유해서 조선은 드디어 1882년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일본은 다시 중국의 끈성용을 이용하여 조선의 자기내와 함께 공동보호 하에 두자고 주장하여 동의를 얻어냈다. 가없는 조선은 두 나라의 종속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였다. 사실 일본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루의 『세계사편력』에서 발췌 인용.

상패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간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본색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의 항쟁을 즐기치게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¹¹

네루는 특히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단체가 부족한 한국과 페르시아 같은 국가들을 위해 반제국주의 연맹의 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네루는 한국과 시리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연합을 만들어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통일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연맹의 서양인 회원들의 부관심으로 국제 사회는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다.¹²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38선으로 나뉘지면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위하여 미·소련 간 협상 후 한반도 문제를 UN(United Nation)에서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도록 선거를 행하고 감리하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회를 파견하였고 메논을 의장으로 뽑게 되었다.¹³ 그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의 대변들은 위원회의 임무를 어렵게 하여 UN총회와의 협정에 소련이 거절하여 상황이 더 크리티컬하게 전개되었다.¹⁴ 한반도의 평화와

¹¹ 네루, J저, 장명국 편역, 『세계사편력』, 서울: 석당, 1983, 192-193쪽.

¹² Prithvi Ram Mudiam 『India and the Middle East』, British Academic Press, 1994, 4쪽.

¹³ Mohan, Pankaj 『Korea and India』, Korea: Shanti Press, 2008, 65쪽.

¹⁴ 위의 책, 66쪽.

인도의 역할에 있어서 네루는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¹⁵ 인도는 전반적인 전쟁 포로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나 큰 고충을 겪어야 했다. 실로 적진의 전쟁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 있던 이들은 매일 매일 정치적 세뇌를 당하고 압박과 위협을 받았으며, 결국 의심 많고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용기, 경의, 헌신, 인내를 필요로 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1890-1969) 대통령이 인도의 네루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인도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⁶

한국위기 당시 인도의 역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인도는 한국문제가 UN에 상정되기 바로 전에 독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도의 이전 통치자로 인해 국토는 분단된 상태였고, 카슈미르 문제도 미결된 상태로서 당시 UN이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안전이었다. 따라서 인도는 중-소 불력의 유대 관계 강화를 통해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통합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외세 통치에 희생당한 인도는 다시는 자국의 독립과 주권이 위협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산권에 너무 가까이 근접하지 않으려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가 자국의 정치적 이득 확보만을 위해 한국위기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취했던 것도 아니었다. 한국과 비슷한 운명을 걸어온 인도는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 위기를 해소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인도는 지리적·문화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분쟁 문제에 있어서 서양국가들보다는 인도가 아시아 이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네루와 그의 정부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UN의 행동에 관해 찬성하

¹⁵ Stalin's suggestion on Korea to Nehru, The West Australian (Perth, WA : 1879 - 1954) 18 July 1954. <http://trove.nla.gov.au/ndp/del/article/47875202>.

¹⁶ 아이젠하워의 인도총리 네루에게 보낸 편지.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10166>; The Committee for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30 Years of Korea-India Relations』 (Seoul: Shingu Publishing Co., 2003), 344쪽 참조.

였다. 이 찬성은 이틀 간의 의회토론으로 이루어졌었다. 네루는 인도의 결정이 중립국의 정책이 아니라 자유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을 날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

4. 압둘 칼람과 한국

한(韓)·인(印) 외교사에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 대통령은 압둘 칼람이다. 타고르가 한국을 일컬어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다. 압둘 칼람은 한국인의 지식과 부지런함이 타고르가 표명했던 등불이 켜진 것이며, 세계적으로 인정한 인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 산업 캡틴, 대학교 교수, 연구사, 선생들, 학생들과 지식인들과 교류함으로써 한국과 인도의 청년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점과 한국이 풍부한 문화와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칼람의 의하면 “긴 기간 동안 한국은 비폭력 저항을 통해 예속으로부터 독립했고 문화적 유산을 잘 지키는 데에 노력해 왔다.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매우 좋은 예와 영감이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인도에 많은 사업을 진출했다”¹⁷고 하였다. 칼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가 세계 지식 시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인상적이었으며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한국을 만끽했다. 한국의 엄청난 눈, 산, 한국인들, 건물들, 도로 등은 칼람 대통령 자신의 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인도의 자연과 인적 자원을 한국의 캐피털과 기술과 사업적 능력과 함께 결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아시아의 두 오래된 문명)의 우호적 관계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상호교류가 1세기 아우디아의 공주가 한국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고 불교의 전파로 활발해 졌다.

¹⁷ International Magazine Diplomacy 2006, Volume XXXII NO.2.
<http://www.diplomacykorea.com/>.

그 후에 무역과 문화교류가 '실크루트'를 통해 이루어진다.¹⁸ 한국은 외부 침략으로 과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시 자신 있게 되살아났다. 우리는 자유 언론과 함께 활기찬 민주주의와 활발한 민간사회를 이룩했다. 우리는 자유, 품위와 개인을 위한 존중의 가치를 믿는다.¹⁹

칼람 대통령은 인도와 한국이 역사적인 변화를 하고 있으므로 인도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 조화, 번영의 열망에 염두를 두고, 그러한 공통적 경험과 목적,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와 열망은 광범위한 협력 방안에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오늘날 한·인 관계의 역할이 아시아대륙의 평화, 안정과 우리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을 위한 동반정책을 통해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크게 인식한다. 인도는 이런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러한 것들이 경제동반자로서 협력하는 튼튼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인도가 우주로켓 사업을 한국과 함께 추진하면서 양국 간의 우주협력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 믿는다. 한국은 인도에서 전자와 자동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출범시켰다.²⁰

칼람 대통령은 한·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 협력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국의 문명적 링크즈를 살펴보면 그는 김씨 집안과의 아요디아의 한 공주와 연관이 있는 신화와 그 후 불교의 전파를 통한 이루어졌던 문화교류를 요즘 시대의 IT와 기술전적 교류와 비교하여 경제발전에서 따라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양국의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지니는 유사성도 밝힘으로써 양국 간 성공적 파트너십을 원했다.²¹

아이디얼 사회에 있어서 선진국은 보통 경제적 번영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칼람 대통령은 어떤 나라가 경제번영을 이룩해서 기뻐할 것이며, 행복을 누릴까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번

¹⁸ 위의 잡지 같은 면.

¹⁹ 위의 잡지 같은 면.

²⁰ 위의 잡지 같은 면.

²¹ 위의 잡지 같은 면.

영한 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발전과 안정을 이룩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일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칼람 대통령은 경제적 번영과 함께 문명적 유산에서 나오는 가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칼람은 한국과 인도에 문명적 유산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번영 못지않게 좋은 인재들이 활동하고, 문명 유산의 가치체계를 인식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인들은 인도시장에서 인상적인 존재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앞선 감각과 선견지명으로 일찍 인도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인도 내에서 삼성, LG, 현대 등은 특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 상품들은 가격대비가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²² 압둘 칼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저월에 한국에 왔다. 눈 내리는 시절이다. 아름답다. 몸도 아름답다. 그래서 한국의 환경이 아름답다. 환경이 아름다우면 국민들이 창의적이다. 국민들이 창의적이면 국가가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²³

압둘 칼람은 ‘한국은 인도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면서 ‘포괄적 경제파트너 관계 등 기술·지식협력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눈 덮인 산야에서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Sweat in the Snow)을 보았다. 연세대에서 만난 교수와 학생들, 대덕 연구단지의 과학자들, 기업인들. 그들에게서 열정과 헌신을 발견했다. 열정과 헌신이 있는 나라는 아름답다. 한국은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였다. 내 자서전 ‘불의 날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설렌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전쟁 없는 상태를 이루기 위한 방안과 평화정착을 많이 강조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신뢰와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칼람의 인식은 모든 나라가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발전국가로서 신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에 한국

²² 위의 잡지 같은 년.

²³ 서울 신문, 2006-04-07일자.

이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칼람은 아쇼카 대왕이 제국을 만들고 난 뒤의 깨달음도 바로 아힘사 (비폭력)였고,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이 바로 비폭력 정신이라며, 평화를 세계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국과 인도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²⁴

칼람 대통령은 인도의 지식기반인 서비스산업과 한국의 제조기반산업이 결합하면 서로의 역할이 커지고 지식과 기술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도의 주요 대학·연구소와 한국의 대학·연구소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등 각 분야별로 협력체제를 제도화하자는 의지에서 ‘지식 플랫폼’의 수립도 희망하였다. 칼람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며 인도가 한국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은 일에 대한 열정과 운명을 개척하는 정신으로 한국인들이 경제발전과 민주화에서 흘린 땀과 어려운 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그 정신을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5. 만모한 싱

만모한 싱 총리는 경제학자이며 전 인도의 총리이다. 그는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²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한국 사람이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한다. 나는 한국인들이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인도사람들도 유사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인도는 서로 매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²⁴ 서울 신문, 2006-04-07일자

²⁵ “The Republic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its emergence as a vibrant democracy,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a powerhouse of innovation in just two generations is an inspiration for the whole of Asia. I am aware of the odds you fought against and the sacrifices you made in the early years of building your nation to gain the prestige and position you enjoy today. It is a reflection of your enlightened leadership and the resolve of the South Korean people. I am conf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play an increas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hat India-South Korea relations will grow from strength to strength as we take forward our strategic partnership”,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0526> 에서 발췌 ; Bharat Somal. 『India on Sale PART I』, Roshni Bharat 2015, 2015, Part-1.

있어서 같이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한국인들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⁶

성은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²⁷, 한국의 성과를 인도인들도 가능성의 한 예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들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역경을 극복한 노력으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경이적인 성과이다²⁸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효율성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인도의 기술, 자동차와 소비 제품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²⁹고 했다. 성은 한국의 사업들은 인도에 더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오늘날 인도 경제의 대부분 분야는 해외투자에 대해 열려 있다. 예전엔 서방업체들만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제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형제들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친구들한테 나의 메시지는 인프라, 생산과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투자의 기회를 위해 인도를 평가해 보라는 것이다.³⁰ 중앙일보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1929년 '동방의 등불'이란 시에서 "코리아, 등불이 켜지면 동방을 밝힐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세대(60년) 만에 황기찬 민주주의, 빠른 경제성장, 혁신의 발전소가 되어 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오늘날의 평판과 지위를 얻기 위해 국가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습엔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한국인의 결단이 투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요인이다.³¹ 인도엔 3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

²⁶ International Magazine Diplomacy VOLUME XXXI NO. 4.

²⁷ UK Heo & Terence Roehrig, 『South Korea's Rise: Economic Development, Power and Foreign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128 쪽.

²⁸ Diplomacy magazine와의 인터뷰에서.

²⁹ 위의 책 같은 면.

³⁰ 위의 책 같은 면.

³¹ 중앙일보, 2012-03-23일자.

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공항·교통시스템 등 인프라 건설에만 향후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부디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인도의 거대한 시장과 젊고 유능한 노동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³²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하여 만모한 싱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친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맺는 말

이상 본론에서 탈식민지 시대 인도의 정치지도자들이 가진 한국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과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인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진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 사회는 한국에 대하여 대중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때 인도 정치지도자들이 가진 한국인식은 인도 국민에서 영향을 미쳤고, 이로써 양국 국민 간의 적극적 상호 교류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네루, 칼람과 만모한 싱 같은 탈식민지시대 인도지도자들의 한국인식에 관한 자료들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네루는 한국인의 독립투쟁에 대한 의미가 숭고함을 역설하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할로 국제사회에 기여하였다. 압둘 칼람은 한국인의 신성이 부자런하고 성실하며,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인도사회에 알렸다. 그리고 만모한 싱은 성실한 한국인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 OECD의 회원국이 되는 등 한국의 성과를 인도인들에게 고지시켰다.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써 양국의 관계에 도움을 주었다. 이 지도자들의 한국인식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인식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의 매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네루, 칼람과 만모한 싱의 인식에는 범아시아주의 시각이 깔려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³² 중앙일보, 2012-03-23일자.

참고문헌

연구논문

- 강인구.(2001),「러시아인의 한국인식- 19 세기말~20 세기초」,『서울학연구』 제 16 호.
- 김영.(2009),「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한국학연구』 제 21 집.
- 김재완.(2005),「칼 리터의 한국인식」,『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 권, 제 1 호.
- 이규소.(2003),「후세 다츠지의 한국인식」,『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 25 집.
- 함동주.(2001),「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Bulletin of the Ewha institute of history』 28 권.

단행본

- 김병모.(2008),『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경기도: 역사의 아침.
- 이옥순.(2006),『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서울: 푸른역사.
- 한·인도 수교 30주년기념위원회,『한국과 인도의 수교 30년』, 서울: 신구문화사, 2003.
- 네루, J저, 장명국 편역.(1983),『세계사편력』,서울: 식탐.
- APJ Abdul Kalam, Y S Rajan. (2014),『India 2020: A Vision for the Millenium』, Penguin UK.
- Baylis, John et. al.(2008),『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harat Somal. (2015),『India on Sale PART 1』, Roshni Bharat 2015, Part-1.
- Chandra, Bipan.(2000),『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857-1947』, 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857-1947, Penguin press.
- Cuming, Bruce. (1984),『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97),『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New York: W.W.

Norton & Company.

L. Lancaster, K. Suh and C. S. Yu.(1996), 『Buddhism in Koryo, A Royal Religion』,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Mohan, Pankaj. (2008), 『Korea and India』, Korea: Shanti Press.

Nehru, Jawaharlal.(2003), 『The Discovery of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rakash Nanda.(2003), 『Rediscovering Asia』, New Delhi:Lancer Publications and distributors.

Said, Edward W.(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Skand R. Tayal.(2015),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Democracies』, Routledge.

UK Heo & Terence Roehrig. (2014), 『South Korea's Rise: Economic Development, Power and Foreign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The Hindu, 1920-2012.

뉴스속보부,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79560>.

서울 신문, 2006-04-07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10166>

Korea Joongang daily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0526>

International Diplomacy Magazine, 2005 Vol. XXXI NO. 4, Seoul.

International Diplomacy Magazine, 2006 Vol. XXXII NO. 2, Seoul.

投稿截止日:2016年 9月15日
審查刊登日:2016年11月15日